

광주문화재단 발간 누정총서 ‘자기표절’ 논란

집필진 참여한 모 교수 ‘자신 연구책자 대부분 차용’
시민 혈세 제작 불구 원고검토·저작권 확인 등 미흡

광주문화재단이 남도의 누정(樓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서적들 가운데 일부에서 ‘자기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18년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와 담양지역 누정에 대한 글과 여행답사글로 구성된 ‘누정총서 시리즈’ 전 6권을 발간했다.

1-6권의 경우 지난 2018년 각 500부씩

발간돼 당시 학술행사 자료로 활용되거나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배포됐으며, 현재는 출판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에는 7-10권까지 4권이 추가로 발간됐다.

이런 가운데 이들 책자 중 일부에서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에 쓴 글이나 만든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따다 쓰면서 그 출처를 밝히

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공적자금’이 지원돼 발행된 책이 기존 출판물이 거의 그대로 복사된 것에 대해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재발 방안을 촉구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제기된 의혹은 집필진 중 한 명인 A교수가 누정총서를 발간하기 1년 전에 자신이 발간했던 연구물 겸 책자의 일부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진과 누정 현판 원본 및 번역 페이지를 제외하고 해설 부분은 대부분 일치하는 등 해당 누정총서의 3분의2 가량이 A교수 책자에서 그대로 차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문화재단측은 누정총서의 제작 취지에 비춰봤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제작 취지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누정문화를 쉽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이었던 만큼 내용만 충실하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또 집필진 선정의 경우 누정총서 발간에 앞서 구성된 출판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았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물이 아닌 누구에게나 읽힐 수 있는 대중서적인 만큼 필진 자신의 글을 그대로 차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책자 발간에 국비와 시비 등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기본적인 원고에 대한 검토 작업과 저작권 확인 등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다.

광주문화재단과 집필진간 계약 내용에도 ‘기획 의도대로 집필한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인용 및 차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재단측 업무담당자는 출판 기획자 책임 하에 누정총서 발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필진 원고에 대한 윤색 작업을 거쳤다고 했으나, A교수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윤리 강령에 따르면 연구 논문인 경우 5여절,

일반 서적의 경우 10여절 이상 차용될 경우 표절 시비가 빚어질 수 있어 자신의 연구물 및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차용을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당초 광주문화재단측이 ‘새로운 창작물 제작’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는 계약 조건상 위배 소지도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창작물 및 연구논문에서 자신의 저서 일부를 그대로 쓰는 경우 표절 중 하나인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일반 형법상 이러한 제작 의도에 반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누정총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사실상 글에 대한 저작권과 책임은 필진에 있다”고 선을 그으며 “항후 필진과의 계약시 창작물의 내용과 인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지침을 보완할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오승지기자

전남소방, 코로나19 심리 상담

전남소방본부는 2일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격리대상자의 심리적 불안,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통한 ‘119재단심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는 현장활동 중 외상경험이 있는 대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서에 배치·운영 중인 전문 심리상담사 15명으로 ‘119재단심리지원단’을 구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을 비롯, 격리자로 지정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해 상담사와 전화연결 후 상담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64)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서울서부지법이 2일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들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취약계층 아동에 전달할 식품꾸러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꾸러미 전달행사가 2일 오전 광주 서구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서대석 청장과 직원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한 축적백과라면, 참치캔 등으로 구성된 식품꾸러미(1천만원 상당)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서구 제공>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 운영 3명중 2명 검거

경찰, 텔레그램 등 SNS 성범죄 140명 검거·23명 구속

조주빈(24·구속)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전날 ‘부파’,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수사 상황실에 법률검토팀을 구성해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기 위해 국제공조파트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5명으로 최근 늘렸다.

경찰은 전날까지 텔레그램 등 사회관

계망서비스(SNS)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운영자 등 총 140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이 오간 대화방을 비롯해 총 98건의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를 구속한 이후에도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의 ‘시조’격으로 여겨지는 ‘n번방’과 운영자 ‘갯갯’을 쫓는 한편, 이들 대화방에서 오간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40주년 5·18행사위, 오월공동체상 후보 공모

오는 30일까지 개인·단체 추천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국내외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오월공동체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오월공동체상은 5·18 40주년을 맞아 신설된 상으로 나눔과 저항, 연대의 오월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행사위는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차별과 불공정한 일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아픔의 현장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고 이들의 활동을 기록·홍보할 방침이다.

오월공동체상은 시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내외에서 제40주년 5·18 행사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월공동체상 추천은 5·18 행사위 홈페이지(www.518people.org)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행사위 이메일(0518g@gmail.com)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행사위는 또 오월공동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해 활동내용을 검증하고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정치인 배제와 소외계층 나눔이 아닌 시민참여와 연대를 통한 나눔,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시상식은 5월27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부활제에서 진행된다.

이경희 5·18 40주년 기념행사 시민참여단장은 “오월공동체상은 80년 5월의 저항정신, 주먹밥 나눔의 공동체 정신, 차별 없는 대등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드리는 상”이라며 “오월공동체상 추천과 시상의 모든 과정이 오월공동체가 구현되는 하나의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기자

음주 운항 어선, 화물선과 충돌

2일 오전 4시47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방파제 앞 500m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499t급 어획물 운반선과 통영 선적 75t급 어선이 충돌했다.

어획물 운반선에는 12명이, 어선에는 9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해경 조사 결과 어선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확인됐다.

/여수=김전선기자

“주차는 내가 해”



○…발렛파킹 문제로 시비가 붙어 떡살잡이를 한 중년 남성들이

경찰서행.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차주 A(53)씨와 주차관리인 B(41)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구 치평동의 한 커피숍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간의 떡살을 잡고 몸

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관리인 B씨가 A씨에게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내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조금만 배려하면 참고 넘어갈 만한 사소한 일인데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최명진기자

금매전문

[감정가이하 빌딩]

- 금남로 대로변 전철역입구 대형빌딩==(감정가이하) 급처분
- 광주약 앞 (반값빌딩) 급매24억(보1억월1,800만원)
- 문화전당역 로타리인접 대로변 대지340㎡ 주상복합 최적 [반값매물] 3.3㎡ 급처분가 1,750만원
- 광주역 대로변 대지400㎡ 건평1,800㎡ 급매19억8,000
- 전대의대 옆 다세대 대지412㎡ 건평641㎡ 급매16억(보6,700월859만원) 365일 공실 없음
- 대인동 센트러빌아파트2,300세대입구 상업지 대지380㎡ 건평800㎡ [반값매물] 3.3㎡급매1,500만원 급처분==병의원 최적
- 유동로타리인접대로변 [반값매물]대지651㎡ 4층건물 급매13억3,000
- 나주 터미널 옆 원룸 매가6억5,000 (보2,000월430만원포함)

[다용도 매물]

- 영광군 법성면 임암리 도로점 와탄천 옆 경사도완만함 임야40,000㎡ 3.3㎡당 12,000원 급처분(굴비생산지법성포인접)
- 강진군 도암면 국도 삼거리코너 계획관리대지4,021㎡ 건평1,130㎡ 공연장, 음식점, 민박 [반값처분]총가5억 교환도 가능
- 강진군 신전면 목장용지 32,000㎡ 예쁜 주택, 축사1동 있음 급매 5억 전원 주택 단지 최적 교환도 가능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웁니다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

CMYK